



Teen STAR

여섯번째 만남

알성달

‘SCHOOLGIRL BABY BOOM’



이 사진은 2005년 5월 27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십대 성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사용했던 표제입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창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출산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게다가 낙태, 신생아 유기 등 생명 파괴와 관련된 많은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CUM 친구들과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제니주노? 리틀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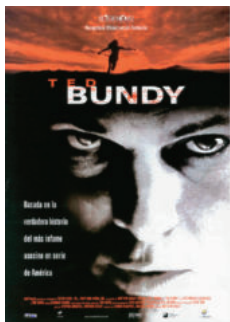
십대 임신의 증가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2008년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 재학생 100명 중 4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고, 더욱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5%는 임신을 하거나 임신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여대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미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의 미혼모 출산은 연간 6,000여명에서 1만 3,000여 명 내외로 추산된다.’라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밝혔는데, 실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혼모시설의 입소자 중 10대 청소년은 1,997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33%에 이르고, 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이 17,172건의 출산을 했고, 낙태는 4,660건에 이르는데 이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낙태수술만 포함된 것으로 불법낙태수술까지 포함한다면 10대의 임신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는 세태 반영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십대 미혼모를 방송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15세 동갑내기 커플 사이에 아기가 생기고,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갑내기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제니주노’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 한 케이블방송에서는 실제로 어린 미혼모(리틀맘)들이 나와 그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생명을 책임졌다는 사실에는 박수를 보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 짝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청소년기, 성(性)적 관심과 욕구 증가

그렇다면 십대 임신이나 미혼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적인 활동이 좀 더 이른 나이에 시작되고 있으며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성적인 관심과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의 작용이 활발해져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변화가 나타나 성에 관한 정보에 민감해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캔십이나 키스, 성관계를 해 보고 싶어 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상상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자극되는 영상물에 과도한 관심을 두게 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관심이 한때의 호기심 정도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테드 번디(Ted Bundy)라는 인물을 알고 있나요? 밝혀진 것만 해도 28명의 여성을 희생시키고 연쇄살인범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한 그 사람이 남긴 유일한(성을 상업화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그동안 기사화되지 못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범죄의 시작은 12살 때 우연히 접한 포르노 잡지였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포르노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고, 반복적인 접촉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자극을 원하게 했다. 나에게서 부러울 것 없는 좋은 부모님과 가족이 있었는데도 나 스스로 감정의 변화를 감추기만 하면서 나 자신을 가족으로부터 소외시켰다.”

책임감 있는 선택, 그리고 용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도 자기의 성적 느낌이나 욕구와 관련된 감정변화에 대해 터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민감한 시기의 감정변화에 대해 터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도 책임 있는 선택을 위해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겠지요. 나를 유혹하는 성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랑과 학업 사이에서, 또는 결혼에 대해, 동거와 혼전성관계, 그리고 임신 역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에 따라 엇갈릴 수 있는 조언과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갈팡질팡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후회스러운 결정을 선헌리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적 욕구와 그에 대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좋겠지요?

틴스타 수업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이 떠오르네요.

“제가 16살이었을 때 제게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기꺼이 낳아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오빠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감정에만 몰두해서 아기의 입장이나 제 부모님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만약 그때 임신이 되었다면 제 인생의 방향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인 느낌과 욕구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 느낌이나 욕구를 어떻게 해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미리 자기 자신에게 마련해 주는 일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 여기에서 자신의 성적 느낌이나 욕구를 어떻게 해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까요?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게 되나요?

- 유혹받는 상황 속에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권리(꿈, 희망..)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 권리, 욕구 그리고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CUM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Cum 김혜정 베로니카(한국틴스타 교사)

십대들을 위한 기도

이해인



하늘의 별, 땅의 꽃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한 치의 여유도 없이
피곤하고 숨 가쁘게 살아가는
오늘의 십대들에게
우리는 늘 미안하고 할 말이 없는
힘없는 어른들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을
가끔은 기도 안에 접습니다.

성급함을 다스려나가는 인내의 힘
충동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절제의 힘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기다림의
긴 과정과 용기 없이는
누구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빛을 누리는 자유인이 될 수 없음을
더 늦기 전에 깨우치게 하십시오.

우리의 십대들이 언제나
우울의 늪에 빠지지 말고
햇살 같은 웃음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웃음 속에 담겨 있는
희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 또한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꿈과 이상에
항상 설레이는 시인의 가슴으로 살되
허황된 욕심이나
병적인 자기도취에 빠져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소중한 십대들이
어리지만 당당하고 단호한 의지,
양심에 충실하여
더욱 맑고 총명한 눈빛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날로 발전하는 전자 문화, 영상 매체
물질문명의 혜택을 즐기며 살되
책을 멀리하지 않고
독서와 사색으로
내면의 뜰을 가꾸어 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능력과 정서를 잃어버린
기계 인간이 될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허한 사람
끈질긴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문장의 매듭을 지어주는 마침표처럼
인간관계의 뒤끝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매력있는 젊은이로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 형제, 친구, 스승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십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되
다른 이의 필요에도
선선히 마음의 창을 열어

어른들의 나태한 적당주의, 안일한 편리주의
교만한 이기주의에 끝없이 도전하며 전진하는 십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살아 있는 십대, 빛나는 십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아멘!

